

물의 본성(本性),
그 세 번째 이야기

「冷」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무더위에 대한민국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때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더위를 식혀줄 무언가를 찾게 되지요. 시원한 물 한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냉수마찰, 가슴속까지 얼얼해지는 얼음빙수 등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아예 계곡과 바다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처럼 물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성질은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이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물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온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물이라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차갑게 해서 마시면 최고의 맛을 낸다고 하는군요. 이 공식은 수돗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정까지 차가운 수돗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차가운 수돗물이라면 여느 생수 부

冷

[차가울 냉]

럽지 않은 맛을 낸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반가울 따름입니다.

냉수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소양강댐의 찬물을 건물 냉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섭씨 4~6℃를 유지하는 찬물을 대형 관로를 이용해 각 가정에 공급하면 냉방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군요. 냉수마찰로 더위를 식히듯 냉수로 냉방을 하는 시대가 온 셈입니다. 또 자동차나 공장 기계의 열을 식힐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물이지요.

이번 호에선 물의 세 번째 본성인 「冷」을 주제로, 물의 냉기(冷氣)를 이어받아 울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해줄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